“가슴으로 낳은 아이들과 동그랑땡 만들며 잔치”

■ 친자녀 2명에 4명 입양 이정배씨 가족의 설맞이

“절차 완화 새가정 찾는 아이 많았으면”

두 딸을 둔 상태에서 4남매를 입양해 여덟 식구가 된 이정배·손현옥씨 가족. 서로 만나 눈빛을 나누면 가슴마다 행복감이 샘솟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이정배(46)·손현옥(여·43)씨네 집은 설이 며칠 남았지만 벌써 ‘잔칫집’ 분위기다. 요즘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먹어야 할 음식 장만에다 아이들 설빔 준비까지 분주하기만 하다. 매년 해왔지만 올해만은 조금 더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이들 부부의 손놀림은 더 바쁘다. 7일 찾아간 이들의 집은 벌써 설 상에 올릴 동그랑땡 등을 부치느라 부산했다.

이씨 부부와 차인표·신애라 부부, 앤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남의 피붙이’를 ‘내 아이’로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들이라는 점이다. 이씨 부부에겐 ‘가슴으로 낳은 아이’만 4명이나 된다. 큰딸 은총(19)양과 둘째 딸 주영(17)이는 배로, 송영(12), 휘영(10), 의영(6), 윤영(여·3)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첫째 은총양과 이제 막 걸음걸이를 배우고 있는 막내 윤영이는 띠동갑이 훌쩍 넘는다. 이씨 부부는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며 웃었다.

이씨는 평범한 회사원, 손씨는 유치원 교사다. 남부럽지 않게 키울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손씨는 “원래 아이를 좋아했는데 입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며 예쁘지만 슬픈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입양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0년 입양에 관심을 갖고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았을 때는 거절당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사랑을 주고 작은 힘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만 갖고 다가섰지만 의욕만 앞선 게 됐다. 손씨는 지속적으로 복지원을 찾았고 입양에 대한 간절함을 전했다. 결국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는 그런 손씨에게 송영이를 소개시켜줬다.

손씨는 “송영이를 처음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02년 6월 태어난 송영이는 그 해 10월 손씨의 ‘가족’이 됐다. “어린 아이는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돌보려고 계속 움직이고 함께 웃다보니 젊어지고 힘이 나더라구요.”

그게 시작이었다. 이씨 부부는 ‘삶의 에너지’를 준 송영이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 부부는 누나만 둘인 상황에서 남동생을 입양했다. 지난 2005년 가족이 된 휘영이다. 이제 휘영이는 형과 누나 사이에서 대장노릇을 하며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다. 첫째와 달리 둘째는 주변의 반대가 컸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이씨 부부는 걱정하지 않았다. 든든한 두 딸이 자신들을 적극 지지해줬다. 이렇게 해서 6남매가 됐다.

남편 이씨는 “처음 입양을 결정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젠 6남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며 “설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신다”고 흥겨워했다. 최근 바뀐 입양 관련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 보내는 여성에게도, 불임 등의 이유로 입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의 새해 소망도 소박하다. “팍팍했던 지난 한 해를 6명의 아이들과 이겨냈잖아요. 올해는 더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명절 분위기 좀 그럴듯하게 내보려구요. 힘나게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백화점 폭파” 협박

롯데 전주점에 17억 요구

7일 오후 자살사이트 운영자라고 신원을 밝힌 한 남성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안에 폭발물을 가진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 남성은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민이 대피하면 백화점 안에 있는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협박범은 ‘백화점에 연락해 5만원권으로 17억원(10㎏)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협박범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께 사전 예고를 한 뒤 전주시 효자동 효자공원묘지에서 모닝 승용차를 폭발시켰다.

경찰은 폭파 협박범의 신원과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5년만에 보험금 12억 받아낸 변호사

단열재 공장 불 20억원 피해
보험사, 고지 위반 지급 거부
보험모집인 위증 밝혀 승소

한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5년 전 공장이 화재로 탄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기 누명까지 썼던 중소기업 사장이 재심 끝에 승소했다.

건축용 단열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광주 슈퍼온도리(대표이사 정학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7년 4월. 공장 설비와 원자재가 모두 불에 타 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대표이사 정학규(48)씨는 H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방화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비화돼 1심에서는 정씨가, 항소심에서는 보험사 측이 승소하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대법원은 결국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의 의뢰를 맡아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지산의 김철(46) 변호사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정씨의 보험계약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보험모집인이 항소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보험모집인을 위증으로 고소했으며, 결국 보험모집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재심의 길이 열렸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6일 피해액 20억여원 가운데 12억원을 보험사가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경찰청의 거짓말

비리 없는 ‘건강시계’ 홍보
순천경찰 2011년 비리 숨겨

경찰이 ‘비리 경찰’ 이미지를 빨리 털어내고 싶은 조급증 탓에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장흥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 ‘건강시계’ 13년 달성 화제’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건강시계’는 경찰관의 공직 비위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없는 무사고 일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건강시계 13년’(무사고 4757일)을 달성, 기념식을 가진 장흥경찰서를 소개하면서 보성·영광·강진·순천 등 5개 경찰서도 함께 언급했다.

보성이 1999년 이래 13년145일(4890일)간 무사고 일수가 유지돼 1위에 올랐고 영광(13년42일·4787일), 장흥, 강진(8년338일·3258일), 순천(7년157일·2712일)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순천경찰의 경우 지난 2011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이 국민에게 ‘허위 홍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찰이 금고털이에 성폭행, 횡령, 도박 등 백화점식 비리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순천경찰과 전남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이 이후 자진 퇴직한 만큼 건강시계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내놓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고무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지역 학생 8만여명 정신건강 ‘빨간불’

교과부, 정서·행동 특성검사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생 8만여명이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광주는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 비율이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에 참여한 광주·전남 초·중·고생 47만7813명 가운데 정서불안 증세를 보여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관심군)이 8만1820명(17.1%)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층상담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주의군)은 2만2610명(4.7%)에 달했다.

광주는 초·중·고교생 23만5008명이 검사에 참여해 3만4760명(14.8%)은 관심군에, 이 중 1만3109명(5.6%)은 주의군에 포함됐다. 자살충동을 받은 적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도 328명이나 됐다. 관심군에는 초등학생 1만73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서불안이 심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은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광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주는 5.6%로 서울(2.8%)보다 2배 높았다. 전남은 24만2805명이 검사에 참여해 4만7060명(19.4%) 관심군에, 이 중 주의군에는 9501명(3.9%)이 포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80억 횡령 관련

공무원 17명 징계

사상 초유의 80억 원대 공무원 횡령사건이 일어난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과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횡령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80억 770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김씨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월세 밀려서…” 대낮 편의점 털어

쌍나팔

○…설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낮에 편의점을 턴 20대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5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홍모(23)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홍씨는 경찰에서 “원룸의 월세가 밀려있고 생활비가 부족해 편의점을 노렸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26235	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532,13층1304호[쌍촌동,부건빛고을아파트] 84.9278㎡	아파트	159,000,000 159,000,000	2012년8월말기준 관리비811,560원 미납상태임
2012타경 27320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93번길 25, 106동 17층 1704호[내방동,내방마을주공아파트] 84.11㎡	아파트	176,000,000 176,000,000	2012년8월말기준 관리비434,570원 미납상태임
2012타경 29067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107동18층1801호[운남동,삼성아파트] 84.92㎡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2타경 30296	1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3078 양산지구현진에버빌 106동 5층 503호 158.90㎡	아파트	340,000,000 34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13062	2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17-14 728㎡	대	88,349,700 88,349,700	목록4,5번매각외 수목존재함;일부 도시계획도로저촉.일괄매각
		동소 317-28 133㎡	대		
		동소 317-14 98.64㎡ 부속건물 단층창고 41.49㎡[건물중부속건물창고는가곡리317-14소재]	단독주택		
2012타경 25126	1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02-16 381㎡	대	202,001,200 202,001,2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202-16 1층86.19㎡ 2층74.09㎡ 제시외 보일러실 6.8㎡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3062	1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112-1 204㎡	답	15,162,000 15,16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부상답이나현황은묵전임
		동소 112-4 445㎡	답		
		동소 112-6 73㎡	답		
	3	동소 317-16 445㎡[매각외수목존재함]	전	11,570,000 11,5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317-30 376㎡[일부도시계획도로저촉;일부도로]	전	63,148,000 63,148,000	목록9번농지취득자격증명요;일부도로.일괄매각
		동소 317-39 192㎡	전		
		동소 338 1193㎡	전		
2012타경 13062	5	동소 355-1 1683㎡[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외수목존재함]	전	35,343,000 35,343,000	일부농로,분묘소재
	6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산109-24 368㎡	임야	5,520,000 5,520,000	분묘소재
2012타경 22998	1	곡성군 입면 서봉리 산16 7537㎡[공유자김옥숙지분7537분의2214전부및동김경임,김영우,김경자지분각7537분의1476전부]	임야	15,276,600 15,276,6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24727	1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 산128 30248㎡	임야	13,611,600 13,611,600	
2012타경 26914	1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552 549㎡	전	11,380,000 11,3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
2012타경 27597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485 393㎡	대	307,030,000 307,030,000	수목포함.일괄매각
		동소 486-1 288㎡[물건번호1:공부상각대지이나현황은전및나대지상태임]	대		
2012타경 28071	1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450-13 725㎡	대	404,550,000 404,550,000	현황은나대지임
2012타경 29470	1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87-1 1320㎡[공유자임석지분12분의1전부][분묘소재및공원,도로저촉]	전	14,220,600 14,220,6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목록2번도로저촉.일괄매각
		동소 87-3 836㎡[공유자임석지분3분의1전부]	전		
2012타경 29609	1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539-31 535㎡	전	5,350,000 5,3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2012타경 30708	1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640 1580㎡	전	20,812,600 20,812,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은묵전,묵답상태임.일괄매각
		동소 641 1395㎡	전		
		동소 642 2502㎡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2타경 28958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72, 1층111호[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80.68㎡	근린시설	908,000,000 908,000,000	일괄매각.임차인 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72, 1층 111-1호[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80.68㎡	근린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72, 1층112호[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84.19㎡	근린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72, 1층113호[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84.19㎡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2. 25.[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3. 4.[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2.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권